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한전기학회의 위상 특집을 내면서



권 옥 현

(서울대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21세기를 향한 준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그 변화를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전기학회가 탄생하여 4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발전을 해온것이 사실이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기학회의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 보았습니다. 박영문회장께서 학회를 운영하시면서 가졌던 발전방향에 관하여 고견(高見)을 주셨고, 대학학사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장수영교수께서 전기공학의 향후 발전 추세와 대학운영에 관한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 특집호에는 근래에 없었던 좌담회를 마련하여 장장 4시간 동안 밤늦도록 전기학회의 좌표설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명삼 전 회장, 남정일 원장, 안우희 소장, 변승봉 이사, 오명환 이사, 한민구 이사, 양해원 교수께서 참석하셔서 고견을 들려주셨고, 김충기 편집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전기학회상 정립을 위해 훌륭한 조언을 보내주신 강인구 부사장, 강영국 부사장, 전재풍 처장, 권오규, 현동석, 김건중 교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학회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기·전자 관련학회의 통합에 관한 본인의 생각도 실어보았습니다.

전기학회를 아끼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 4월